

면세점 고난의 끝은 언제?... 폐점·축소 잇따라

현대 동대문점 7월 말 철수... 무역센터점 규모도 줄여
2016년 중 한한령 이어 2020년 팬데믹... 불황의 긴 터널
업계, MICE 수요 잡기 위해 총력... 中 비자 면제도 기대

사드 보복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겪은 면세업계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는 면세점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2020년 문을 연 시내면세점 등 동대문점을 7월 폐점할 예정이다. 무역센터점도 매장을 축소하고 공항 면세점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대면세점 측은 "중국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경영 상황 개선과 적자 해소를 위해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22년 코엑스 시내면세점을 폐점했고 작년 6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이후 국내 최대 시

내면세점인 잠실 월드타워점의 영업 면적도 줄었다. 신세계면세점은 1월 부산 센텀시티점 문을 닫았다. 두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감축에도 나섰다. 면세점업체가 불황을 겪는 이유는 2016년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며 본격화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긴 했지만 단체 관광객 중심의 대량 구매 구조 대신 개별 관광객 비중이 늘면서 구매 단가가 낮아져 면세점 매출에 타격을 줬다.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젊은 층이 많아졌고 이들은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시내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현재 '올리브영N'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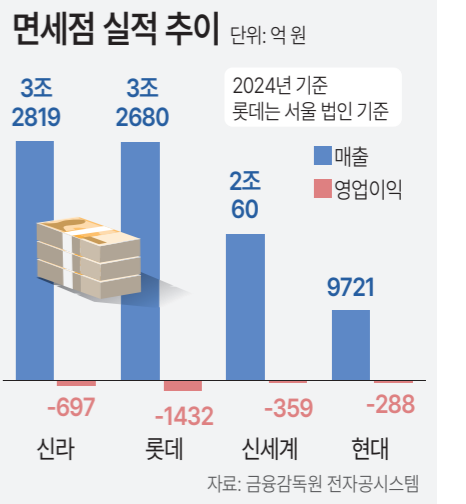


사드 보복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겪은 면세업계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뚝방 인천공항 면세구역. 박미나선임기자

수의 매출에서 해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다이소 역시 작년 해외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보다 50%, 결제 건수도 42% 증가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면세점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 추세다. 2월 외국으로 떠난 내국인 관광객은 26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지만, 면세점을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14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체의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다. 작년 롯데면세점(1432억 원)·신라면세점(697억 원)·신세계면세점(359억 원)·현대면세점(288억 원) 등 주요 4개 면세점의 영업손실 합계는 총 2776억 원에 달한다. 업계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고부가 비즈니스

단체(MICE) 유치가 주력하거나 외국계 여행사와의 제휴를 확대하는 등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 관광객은 개별 관광객보다 구매 단가가 높아 실적 반등을 위한 핵심 수요로 꼽힌다. 면세업계는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 단체 관광객 위주로 영업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포상 관광 및 콘퍼런스 참가(MICE) 등 비즈니스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도 무게를 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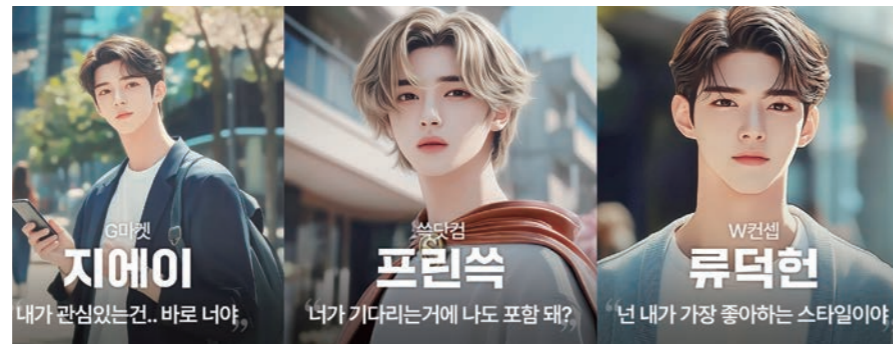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추세다. 시내면세점도 줄이고 개별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매출을 늘리기보다 어떻게든 적자를 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경우 구매력이 높은데, 오는 3분기 중국인 비자 면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 분위기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신세계 온라인 3총사 '랜더스 쇼핑페스타' 총출동

신세계그룹 대표 이커머스 SSG닷컴·G마켓·W컨셉은 4일부터 13일까지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우선 SSG닷컴은 대표 혜택으로 랜더스 쿠폰팩을 제공한다. 이마트몰·신세계몰 상품은 최대 12%,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은 최대 10% 할인되는 쿠폰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이마트몰 전용 8·10·12% 장바구니 쿠폰 중 한 장을 매일 임의로 지급한다. SSG닷컴은 해당 기간 한우 등심을 반값에, 가공식품을 원플러스(1+)에 각각 선보이는 등 먹거리와 생활용품 중심의 특가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몰에서는 에스티 로더·키엘 등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상품을 단독 구성으로 판매한다. 신세계몰에서는 '말본골프'를 신규 론칭해 최대 50% 할인한다. G마켓과 옥션은 인기 브랜드 40여곳과 손잡고 단독 특가 상품을 준비했다. 최대 10% 적립 및 할인쿠폰·최대 24개월 무이

SSG닷컴, 최대 12% 쿠폰·장보기 특별 혜택
G마켓·옥션, 최대 10% 적립·쿠폰 혜택 제공



신세계그룹이 '랜더스 쇼핑페스타' 개최를 앞두고 선보인 인공지능(AI)모델. 왼쪽부터 G마켓 모델 '지메이'·SSG닷컴 모델 '프린스'·W컨셉 모델 '류덕현'. 신세계그룹

자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의 브랜드'를 매일 7종씩 공개한다. 브랜드별 스테디셀러를 할인가에 판매한다. 로보락·제일제당·LG생활건강·LF 등 유수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카테고리별 특가일도 진행한다. 7일까지

'제부 제이파크 에어텔' 상품을 18%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후 '그랜드하얏트 제주 패키지' '몽골 여행 패키지' '푸우옥 풀빌라'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후쿠오카·다낭·파리 등 양복항공권 한정 특가 상품도 마련했다. 이 외에 W컨셉은 행사 기간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고객에게는 최대 15% 할인쿠폰과 함께 6종의 랜더스 쿠폰팩을 발급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에는 '24시간 브랜드 세일'이, 매일 오후 8시에는 '럭키드로우'가 진행된다. 70만 원 상당의 에토스 가죽 재킷을 비롯해 아디다스 도료비비안웨스트우드 클러치구두레 레더백 등을 준비했다. 행사 기념 룩북도 공개한다. 날바이피레테라·와르·이미스·나이가·아디다스 등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캐주얼스�포츠웨어 스타일링을 화보로 만날 수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AI가 대신 장 본다

'롯데마트 제타' 앱 출시 기념
4만 원 구매 시 1만 원 할인



롯데마트가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 제타'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 제타'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이달 1일 기존 '롯데마트몰' 앱을 한층 고도화 한 온라인 그로서리 전용 앱 '롯데마트 제타'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제타' 앱의 슬로건을 '스마트 신선헌'로 삼고 AI 기반의 편의성과 효율성 높은 온라인 그로서리 장보기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제타 앱의 핵심 경쟁력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인에게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AI 장보기' 서비스다. '스마트 카드'는 AI 장보기의 핵심 콘텐츠로 버튼 터치 한 번으로 10초 내에 개인별 맞춤

장바구니를 완성한다. 롯데마트 제타 앱에서는 고객이 상품 배송 시간을 선택하면 점별 재고 수량과 상품의 판매되는 추이를 분석해 선택한 배송 시간대에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노출한다. 롯데마트는 앱 출시를 기념해 롯데마트 제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날부터 7일간 롯데마트 제타 앱을 통해 900원대 전복·2000원대 생연어 등 오프라인과 동일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뒤틀어 놓은 역사를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보자! 학생, 학부모 모두 읽어야 할 책!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